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혜경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Hye-Kyung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Vision University of Jeonju

Received : 6 August, 2013
Revised : 16 October, 2013
Accepted : 17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Hye-Kyung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eonju-vision University

235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60-760, Korea,

Tel : + 82-63-220-4102

+ 82-17-621-7401

Fax : + 82-63-220-4109

E-mail : hglee@vision.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in dental hygiene majoring students.

Methods : Subjects were 250 dental hygiene majoring students in J area from March 20 to April 20, 2012.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2.0 for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practice and major stress factors($p<0.0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actices, satisfaction, and self-expectations($p<0.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9%($p<0.05$). The combination of self-leadership, activity, interpersonal factors were very important factor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8%($p<0.001$).

Conclusions : Self-leadership is able to decrease stress. Self-leadership is very important in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majoring students.

Key Words :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색인 :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서론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한 두 사람이 지시-통제하던 방식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조직구성원들 스스로가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표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관리와 내적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셀프리더십에 주목하게 되었다¹⁾. 셀프리더십의 개념은 Manz²⁾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의 일체로서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이다. 현대의 작업 환경은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 개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의 개념은 전문성 및 개인의 효과성, 그리고 재적통제위의 맥락에서 설명되어 왔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셀프리더십의 속성은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 과정을 이끌어내게 된다.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치위생과 학생과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알 수 있듯이 셀프리더십이 조직의 유효성과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만족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변수라 판단할 수 있다.

치위생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전문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실제 치과의료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론과 실재를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며,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치과 의료현장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으로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의료 현장이라는 친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의료 종사자와 상호관계를 하면서 환자들의 구강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의뢰서비스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임상실습을 통하여 학생은 다양한 치과의료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기본 역할과 기술을 학습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행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폭넓게 준비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어려움, 역할의 모호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할수행, 과중한 업무, 무력감, 능력 부족, 무능함, 불확실성,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마음 상하는 것, 통제력 부족, 지도교수와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당면하는 괴로움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6)}. 이러한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 및 인내력을 감소 시킬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저하와 부정적인 실습경험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⁷⁾. 스트레스 반응은 자극으로부터 비롯되며 개인의 지각과 평가가 중요하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적용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직문화 안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해봄으로써 치위생과 교육과 실습지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J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상실습을 마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조사요원은 2명에게 사전교육 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해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한 460(92%)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2.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Manz²⁾가 개발하고, 김⁸⁾이 수정·보완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자기기대 0.81, 리허설 0.74, 목표설정 0.75, 자기보상 0.64, 자기비판 0.75, 건설적사고 0.7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심 등⁹⁾과 황¹⁰⁾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고, 환경요인(7개 문항), 대인관계 요인(7개 문항), 역할 및 활동요인(10개 문항), 이상과 가치요인(6개 문항), 진료분야별 요인(12개 문항) 등의 5개 하위영역으로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각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환경요인 0.77, 대인관계 요인 0.82, 역할 및 활동 요인 0.79, 이상과 가치요인 0.85, 진료분야별 요인 0.91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진료분야 영역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	%
Gender	Female	452	98.3
	Male	8	1.7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56	33.9
	Moderate	228	49.6
	Dissatisfied	76	16.5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184	40.0
	Moderate	216	47.0
	Dissatisfied	60	13.0
Major reasons for applying	Because school grades	40	8.7
	Recommended for parents and around	144	31.3
	High employment rate	112	24.3
	Aptitudes and interests	40	8.7
	Followed by professional	116	25.2
	Etc.	8	1.7
Total		460	100.0

연구성적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여성이 452명(9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실습만족도는 '보통이다' 228명(49.6%), '만족한다' 156명(33.9%)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공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216명(47.0%)였으며, '만족한다' 184명(40.0%), '불만족한다' 60명(13.0%)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과 지원동기에서는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가 144명(31.3%), '전문직이어서' 116명(25.2%), '취업률이 높아서'가 112명(24.3%)로 높게 나

타났다.

2. 실습 및 전공 만족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 분석

실습 및 전공만족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실습만족도는 이상과 가치요인 및 진료분야별 요인을 제외하고는 불만족한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은 불만족한다가 만족한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요인, 역할 및 활동 요인, 이상과 가치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2.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experience major stress factor analysis of satisfaction

Classification	Environmental factor	Interpersonal factor	Role and activity factor	Ideal and value factor	Each medical examination factor	
	M±SD	M±SD	M±SD	M±SD	M±S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01±0.77 ^{bc}	2.44±0.71 ^b	2.70±0.55 ^{bc}	2.80±0.71 ^{bc}	2.38±0.75 ^b
	Moderate	3.26±0.60 ^{ac}	2.52±0.74 ^b	2.99±0.59 ^{ac}	3.16±0.66 ^{ac}	2.72±0.58 ^b
	Dissatisfied	3.53±0.63 ^{ab}	3.04±0.66 ^a	3.24±0.50 ^{ab}	2.44±0.71 ^{ab}	2.53±0.50 ^a
	F(p)	16.01 (0.000 ^{***})	18.97 (0.000 ^{***})	25.48 (0.000 ^{***})	24.45 (0.000 ^{***})	13.18 (0.000 ^{***})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3.02±0.64 ^{bc}	2.57±0.67	2.84±0.60 ^b	2.98±0.65 ^b	2.51±0.63
	Moderate	3.27±0.65 ^{ac}	2.55±0.78	2.93±0.55 ^b	3.08±0.75 ^b	2.64±0.70
	Dissatisfied	3.61±0.77 ^{ab}	2.74±0.83	3.22±0.63 ^a	3.44±0.70 ^a	2.54±0.49
	F(p)	19.36 (0.000 ^{***})	1.68 (0.187)	9.49 (0.000 ^{***})	9.90 (0.000 ^{***})	1.85 (0.159)

*** p<0.001

^{a,b,c} same symbol represents group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able 3.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of self-leadership

Classification	Self-expectation	Rehearsal	Goal-setting	Self-compen sation	Self-criticism	Constructive mind	
	M±SD	M±SD	M±SD	M±SD	M±SD	M±S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3.53±0.53 ^{ab}	3.56±0.67 ^a	3.53±0.64 ^a	3.85±0.53 ^a	3.19±0.69	3.19±0.61
	Moderate	3.26±0.68 ^{ac}	3.38±0.56 ^b	3.19±0.55 ^b	3.51±0.65 ^b	3.15±0.67	3.17±0.65
	Dissatisfied	3.09±0.52 ^{bc}	3.53±0.82	3.23±0.74 ^b	3.49±0.56 ^b	3.30±0.96	3.08±0.66
	F(p)	15.975 (0.000 ^{***})	4.081 (0.018 ^{**})	14.750 (0.000 ^{***})	17.447 (0.000 ^{***})	1.230 (0.293)	0.832 (0.43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3.40±0.63 ^a	3.50±0.57	3.44±0.69 ^a	3.73±0.54 ^a	3.12±0.75 ^b	3.24±0.68 ^a
	Moderate	3.33±0.53 ^a	3.46±0.68	3.30±0.53 ^a	3.68±0.55 ^a	3.15±0.71 ^b	3.15±0.58 ^a
	Dissatisfied	3.09±0.84 ^b	3.40±0.79	2.98±0.68 ^b	3.11±0.80 ^b	3.49±0.69 ^a	2.97±0.65 ^b
	F(p)	5.677 (0.004 ^{**})	0.572 (0.565)	12.927 (0.000 ^{***})	27.249 (0.000 ^{***})	6.140 (0.002 ^{**})	4.308 (0.014 [*])

* p<0.05, ** p<0.01, *** p<0.001

^{a,b,c} same symbol represents group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3. 실습 및 전공만족도의 셀프리더십 요인 분석

실습 및 전공만족도의 셀프리더십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3.85로 자기보상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한다는 건설적사고 요인에서 3.08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요인이 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는 불만족한다가 건설적사고와 목표설정 요인에서 낮게 조사되었고, 자기기대,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사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의 진료분야 영역 임상실습 스트레스 분석

연구대상자의 진료분야 영역 임상실습 스트레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진료보조 및 협조 업무와 관계되는 교정, 치주, 소아치과, 보철, 보존, 발치 및 구강외과 수술, 타액 흡입 영역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반

면, 예방과 구강보건교육과 관계되는 칫솔질 교습, 불소도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게 조사되었다.

5.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셀프리더십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 회귀식은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001), 회귀식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결정계수 0.311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Table 4. Research on dental care areas clinical practice stress analysis

Classification	M	SD
Tooth and oral surgery	2.60	0.96
X-ray photography and developing	2.51	0.97
Scaling	2.54	0.92
Saliva suction	2.56	0.96
Impression	2.54	0.96
Tooth brushing instruction	2.27	0.85
Fluorine applicatin & sealent	2.23	0.76
A field of orthodontics	2.60	0.92
A field of periodontics	2.57	0.89
A field of pediatric dentistry	2.64	0.99
A field of prosthodontics	2.69	0.96
A field of operative dentistry	2.61	0.98

Table 5. Clinical practice stress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Classification	B	SE	β	t	p
(constant)	3,626	0,113		32,014	0,000***
Stress of clinical practice	-0,070	0,031	-0,106	-2,270	0,024

***p<0.001

Dependent variable=Self-leadership, $R^2=0.301$, Adjusted $R^2=0.311$, $F=5.152$ ($p<0.05$, $p<0.001$)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lpha = 0.05$

총괄 및 고안

치위생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이나 개념의 이해에만 그치지 않고 치위생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및 통합, 적용함에 있어 치위생과 교육과정에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낮은 실습현장과 전문지식의 부족, 대인관계 능력의 결핍,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1,12}.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신체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따라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임상실습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과에 흥미를 잃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과 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상자들은 실습 및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환경요인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M=3.01-3.6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을 수행함에 있어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환경요인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양과 문¹⁵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로서 학생들이 낮은 환경 및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처음 접하게 되면서 환자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실습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의 역할과 실습기관에서의 역할의 차이에 의해 혼란을 겪고, 대인관계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전문지식의 부족,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제물에 대한 부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 등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의 요구 및 능력에 부합되는 임상실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상자 중심의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괄하여 교육 담당 치과위생사의 체계적인 시스템화를 통해 실습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습생들이 적절한 역할 및 활동을 통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장차 현 치과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재개발을 통한 산업체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침서 개발에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과 자기보상은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목표설정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되고, 대상자는 효과적인 행동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고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및 추상적인 무형의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 패턴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과 이¹⁴의 연구에서 설명하였듯이 인식만족과 교과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 인식만족의 경우는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함양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교과만족은 교수법 및 전공과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만족도를 높여 목표설정과 자기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진료분야 영역 임상실습 스트레스 결과에서는 진료보조 및 협조 업무(교정, 치주, 소아치과, 보철, 보존, 발치 및 구강외과 수술, 타액 흡입)와 관계되는 영역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이 이론 위주의 교과목으로 편중되다보니 학생이 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진료분야 별 업무 수행 능력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진료영역과 관계되는 교과목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 분야가 서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매뉴얼화를 통해 실무교육과 학교 교육이 통일화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최종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31%이다. 이는 김과 홍¹⁶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학생들일 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셀프리더십에 고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학교교육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 치과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자율성을 갖춘 리더십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셀프리더십은 증강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인성개발, 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습 전 사전교육과 실습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습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역할변화와 구강진료대상자의 서비스 욕구 등이 다양해지고 있음^{12,17)} 교육하고, 실습생은 전문지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실습에 임하며, 체계적인 실습매뉴얼을 실습학생에게 제시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습기관은 학교와 주기적인 만남으로 표준화된 실습지도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의추출에 의한 표본선택으로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스트레스 요인과 셀프리더십에 대한 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나 추후 개인특성, 실습병원의 유형 등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지각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J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상실습을 마친 치위생(학)과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해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한 460(92%)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설문문항은 2명의 자료수집 조사원에게 미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비조사한 후, 이를 수정 보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 하였다.

1. 실습 및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환경요인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M=3.01-3.61),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2. 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과 자기보상 요인은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진료분야 영역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진료보조 및 협조업무(교정, 치주, 소아치과, 보철, 보존, 발치 및 구강외과 수술, 타액 흡입)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되었다.
4.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 회귀모형의 최종 설명력은 31%로 나타

났다(p<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영역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대처 방안을 찾아, 다양한 진료경험으로 이론과 실습이 접목하여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의료기관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References

1. Seo MGA.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in* 2005; 11(1): 45-58.
2. Manz C. Helping yourself and others to master self-leadership. *Supervisory Man-agement* 1991; 36(11): 8-9.
3. Chun JY, Shin MS, Kim SK. Effect of self-leadership on stress cop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 Soc Dent Hyg* 2012; 12(2): 285-92.
4. Jang JH, Lee YS, Moo A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oral health professional. *J Korea Soc Dent Hyg* 2011; 11(3): 395-404.
5. Lee JH, Jeon ES. A study on causes stress experienced by part study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Dent Hyg Sci* 2009; 9(1): 137-43.
6. Nam YO, Jang JH, Kim SS. According to the clinical training, the study of stress and coping ways of stress. *J Korean Acad Dent Hygiene Educ* 2002; 2(2): 145-58.
7. Chang BJ, Song KH.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5; 11(1): 81-90.
8. Kim H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oongsil, 2002.
9. Shim HS, O JS, Bae HS, Yoon EK, Seong JH. The status of clinical practice by dental hygiene students. *J Oral Biology Res* 2003; 27(2): 37-50.
10. Hwang SH. A study on the stressors experienced during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Master's thesis]. Cheonan: Univ. of Dankook, 2005.

11. Kim MW. A study on the factors for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mong physical therapist students, *The Research bulletin of Physical Therapy Departments, Masan University*; 2003: 177-96.
12. Hong SM, Han JH, Kim HK, Ahn YS. A study o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9; 9(2): 219-24.
13. Im YS. A study about the clinical nurses' attitude toward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1997.
14. Jeong MK, Lee JY. Relation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 Soc Dent Hyg* 2012; 12(6): 1241-9.
15. Yang NY, Moon SY.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11; 17(2): 216-25. <http://dx.doi.org/10.1006/jmbi.1995.0238>.
16. Kim JY, Hong JY. Self-leadership,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in* 2007; 13(2): 176-83.
17. Jang SY, Kwon SB, Yang SK. A study on stress factors in hygienists caused by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by pattern of hospital, *J Korea Soc Dent Hyg* 2013; 13(2): 181-91.